

골단염(Epiphytitis)

뼈의 성장판(골단)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서 무릎 위 요골의 밑쪽 끝에서 부터 발생한다. 골단은 생후 24개월에서 27개월 사이에 골화 되므로 어린 말에서만 발상하며 “큰 무릎”(big knees)이나 “안으로 틀어진 무릎”(knock knees)등은 모두 골단염이 원인이다. 대부분의 경우 칼슘(Ca)과 인(P)이 불균형한 농후사료를 과식함으로써 발생한다.



☞ 증상

무릎 전체가 커지고 붓게 되는데 요골 원위부에 있는 성장판 부위의 부종이 가장 명확한 임상증상이며, 그 부위 촉진시 동통을 표시하고 파행은 없을 수도 있으며 X-레이를 찍어 보면 골단에 염증이 생긴 것을 볼 수있으며 염증이심하게 손상된 경우 말은 부자연스러운 걸음 걸이를 보인다.

☞ 진단 및 치료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영양소 결핍이라면 일차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사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부적당한 칼슘함량을 보이게 된다. 상대적인 칼슘 부족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투여하거나 사료 내의 곡류 양을 줄이면 효과가 있다. 그릭 다리가 많이 휘어진 경우(아주 어린말에서 가끔 발생) 꺾쇠(호치키스, Hotchikiss)를 박아주거나 석고붕대를 해주고 휴양 시킨다.

